

메타세쿼이아, 도심선 '골칫거리'

뿌리가 하수관 뚫고 보도블럭 부쉬

도심 가로수로 각광받던 메타세쿼이아가 최근 광주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반면 농촌에서는 메타세쿼이아가 주요 관광 수입원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요 가로변 주민들이 한 달 평균 20회 이상 광주 시내 대표적인 가로수 가운데 하나인 메타세쿼이아가 하수관을 뚫어 악취·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메타세쿼이아를 심은지 20년이 지나면서, 주먹가 하수구 틈새로 뿌리가 내리면서 악취 현상을 일으켜 침수 피해를 주는 데다 아스팔트(Asphalt) 도로·보도 블록을 뚫고 올라와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시내 메타세쿼이아는 모두 1만621그루로 ▲동구 510그루 ▲서구 1천388그루 ▲남구가 267그루 ▲북구 3천526그루 ▲광산구가 4천980그루 등이다.

이 나무가 많이 심어진 구간은 ▲동구가 무등로 1구간(구 시청~산수 오거리·322그루) ▲서구 영주로 2구간(신학대사거리~영주체육관·330그루) ▲남구 군분로(무등 시장~백영 교차·210그루) ▲북구 무등 1길(광주역~동운고가·668그루) ▲광산구가 사암로(송정 IC~월곡 시장·618그루) 등이다.

이들 메타세쿼이아는 지난 1980년~1997년 사이에 도심 미관·공기정화 등을 위해 심은 것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나무는 뿌리가 얇게 날리

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다, 지하 20~50cm 정도에 매설된 하수관과 아스팔트 포장·보도 블록·전선 등을 쉽게 뚫고 뿌리를 내려 도심 가로수로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구는 지난 9월3일 하수관 역류 전문 조사팀에 의뢰해 무등 1길(광주역~동운고가)의 상습 침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길이 40cm 뿌리가 지름 70cm의 하수관을 막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광주시에 이에 따라 도심 메타세쿼이아를 모두 베어내고, 새로운 수종으로 가로수를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무를 보호해야 한다거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담양군 금성면의 메타세쿼이아는 지역 경제의 효자가 된 지 오래다. 울퉁퉁 메타세쿼이아 길을 찾은 관광객은 18만5천명으로 62억원의 관광 수입효과를 봤다. 가로수 주변에 하수관이나 보도 블록 등이 없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호남대 김희우 조경학과 교수는 "메타세쿼이아의 경우 병해충이 많이 없고 빨리 자라는 장점이 있지만 뿌리 특성상 도심 가로수로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양의 가로수를 한꺼번에 잘라 내기도 옮겨심기도 마땅치 않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13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구 시청 앞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최근 이 나무는 하수관 등에 피해를 주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호중 조선대 총장 취임 첫 기자회견

“노벨상 수상자 배출 탄탄한 기초 닦겠다”

조선대학교 제13대 전호중(53) 총장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46년에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초를 닦는 일을 묵묵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은 오는 21일 조선대 서석실에서 열린다.

지난 10일 공식 집무에 들어간 전 총장은 이날 “1946년 조선대의 개교 이후 관선이사 체제를 불려온 '1·8 항쟁'의 1988년까지를 암흑기로, 이후 현재까지를 외적 성장기로 볼 수 있다”며 “정이사 체제 출범을 앞둔 지금부터 100주년이 되는 2046년까지는 내적 성장기로 보고 당장의 빛나는 업적보다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이사 체제 전환 로스쿨 유치 최선

그는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사회 봉사 등 세 가지”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교육'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 총장이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것. 이를 위해 책임감과 이타적 사고 등을 강조했다.

그는 “집무를 맡은 뒤 총장의 관공비 내역을 봐야 하니 작은 돈도 허투루 쓸 수 없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같은 도덕성과 선진성을 토대로 멀리 보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 당면 과제로 현 관선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2일까지 정이사 체제로 전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 등을 꼽고 “로스쿨의 경우 총 입학정원의 지방대 수도권 비율을 6대4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국립대와의 공정 경쟁 차원에서 호남 대표 사학인 조선대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총장은 조선대에 로스쿨이 설립돼야만 하는 이론적 근거로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헌법상의 역평등 이론을 내세웠다. 또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률가 양성이 필수적이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현재의 상황에서 로스쿨마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지방의 인재 유출이 불 보듯 뻤하다는 것이다.

정이사 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은 지난 20년간 스스로 대학을 발전시켜온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이사 구성 원칙은 ▲구경영진의 철저한 배제 ▲설립정신의 구현 ▲1·8항쟁의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미래지향적 가치 충족 등 4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조선대가 한국 문화예술계의 많은 인재를 배출한 감점을 살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주도하는 '국제문화중심대학'으로 거듭나겠다”며 “아시아문화전당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을 잘 살리고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부(富) 창출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수도 주도하는 국제문화대학으로

그는 또 “조선대의 설립 정신을 21세기에 맞게 재창조하는 작업은 지금까지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과 성원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십 구현”이라며 “우수 인명 양성은 물론 지역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 부품산업, 문화산업 등에 대한 R&D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광주시 겨울나기 대책

5,700여 곳 화재·동파 사고 예방 62개 시설·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광주시는 겨울 '라니나' 등 이상 기온으로 유례없이 추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폭설 대비 ▲원활한 상수도 및 연료공급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에 나서기로 했다.

◇화재·안전사고=시는 내년 2월까지 3단계 소방안전 대책을 마련해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1단계로 유관기관·민간단체 등과 지역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로 영화관·재래시장·쪽방 및 주거형비닐하우스 등 5천700여곳을 특별점검한다. 시는 3단계로 특별점검 결과 나온 문제점을 현지 확인지도에 철저히 고쳐도록 할 계획이다.

◇폭설 대비=영화촬영소 361t, 모래 236㎡를 이미 고가도로, 교량 등에 배치했다.시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 한 단계 앞서 제설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시민과 함께 눈치우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상수도·연료 공급=시는 동파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12만7천개의 급수전을 점검해 보온조치한다. 또 생활민원 이동차리버를 편성해 동파 사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주유소 등 464개 연료공급 업체에 대한 품질검사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고지대 거주자에 대한 연탄공급도 차질 없게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보호=시는 2월까지 노인·장애인 등 62개 사회복지시설과 재가 저소득층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유관기관·단체가 162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작은 나눔운동을 펴도록 유도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동구아카데미' 수료식

광주시 동구청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행해온 '동구아카데미'가 13일 오전 동구청에서 제1회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1월부

터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동구아카데미에는 63명의 주민들이 문화·교육·건강·경제·여성 등 21개 전 강좌에 출석해 이날 우수 참석자 상을 받았다.

<동구청 제공>

항공사진 찍어

불법건축 단속

광주시는 13일 항공사진을 찍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이나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3억8천만원을 들여

시 전 지역(501.41km)에 대한 디지털 컬러 항공사진 촬영과 관측 용역을 내년 4월까지 끝낸다.

시는 지난 2003년 흑백 촬영한 항공사진과의 대조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등을 찾아낼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무등산 자락의 푸른호수, 허는 서성리 전원 Village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자연친화적 전원주택단지

자연친화적 전원주택단지

분양처: 02-653-9870

지속가능유기 연금 목돈 빌출

겨울 냉방 고민 끝

초절전형 냉방기 리스 하자!

부족부담 효과

무이자 12개월 분할 대금 3개월 전지급

80% 할인

080-372-2900